

삼성물산, 신·재생 에너지 사업 강화

그린에너지사업부 확대 개편 ... 원유·가스·광물 포함 자원 개발사업도

삼성물산이 신·재생 에너지 및 자원개발 사업을 대폭 강화한다.

삼성물산이 에너지·환경, 자원 분야를 미래 신수종 사업으로 선정하고 2011년 들어 신·재생 에너지 및 해외 자원 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선다.

삼성물산 관계자는 1월5일 “신·재생 에너지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그린에너지사업부를 사업본부 체제로 확대 개편했다”고 밝혔다.

기존 조직을 그린에너지사업본부로 격상한 것은 2010년부터 캐나다 Ontario에서 진행하는 세계 최대의 풍력 및 태양광 복합발전단지 조성사업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미주, 유럽,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 태양광, 풍력, 바이오에너지 등 다양한 신·재생 에너지 사업을 강화하기 위함이다.

삼성물산은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중북부 지역에서 130MW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면서 북미 태양광 발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다.

미국 태양광 발전소는 2010년 말 전력공급 계약 체결에 이어 2011년 초 착공할 예정이다.

삼성물산은 신·재생 에너지 사업 강화와 함께 앞으로 석유 및 가스 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남미, 아프리카, 러시아 등에서 리튬, 니켈, 코발트, 유연탄 등 주요 광물 자원도 적극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.

삼성물산은 2010년 11월 칠레 아타카마 염호에 있는 리튬 광구의 지분 30%를 한국광물자원공사와 공동으로 인수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전재-재배포금지>

<화학저널 2011/01/05>